

노동정책연구
2018. 제18권 제4호 pp.51~75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대학생 진로교육 참여와 노동시장 성과*

박천수**

이 연구는 최근 대학 졸업생의 일자리 정착 곤란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진로교육 참여 현황과 그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관련 자료(2013 GOMSI)를 이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대학 졸업생은 여러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지원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만족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재학 중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도움이 되었다는 개수가 늘어날수록,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임금수준에도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 취업박람회, 직장체험, 취업캠프는 정규직 취업 가능성뿐만 아니라, 임금수준 향상에도 체계적으로 기여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에서 진로교육 관련 지원 강화, 진로교육 수준 제고, 개인 혹은 전공별 프로그램 선별 추진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용어 : 대학생 진로교육, 취업, 임금수준, 진로교육 프로그램 선별

논문접수일: 2018년 6월 18일, 심사의뢰일: 2018년 6월 22일, 심사완료일: 2018년 11월 26일

* 2016년 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면 수정한 것이다. 논문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중요한 제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econodr@krivet.re.kr)

I. 머리말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직무보다 조직(단위 기업 등) 중심으로 발전했다. 급여는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수행업무는 주기적으로 순환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특정한 직무에서조차 전문성보다 일반능력 혹은 잠재능력을 우선시하며, 직원 채용도 학력수준별로 일괄 선발하여 배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에서도 개인의 특성과 흥미를 고려한 진로설정보다 고학력과 학벌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박천수 외, 2012: 17). 그 여파로 중등단계 직업계 학생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상급학교 진학 비중도 높은 편이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

이렇듯 과도한 고학력의 추구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야기하고, 고학력자의 취업곤란과 노동시장에서의 퇴장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2017년 기준 9.9%로 연간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률도 계속 높아져 10.7%(2016년 1/4분기)로 전년동기대비 1.1%p나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률 역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어,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청년들의 노동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6; OECD, 2011). 이는 2015년 대졸 이상 학력 보유자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가 334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7%나 증가했으며 2000년(159만 2천 명)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늘었고, 그 비중도 전체 인구의 20.8%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각 연도).

이처럼 고학력자의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로 인해 학교에서 일자리(school to work)로의 이행을 돕는 데 목적을 둔 진로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에 제정된 「진로교육법」(법률 제13336호)도 고등교육 단계의 진로교육 강화와 지원(제Ⅲ장)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서 대학생 진로교육을 위하여 진로교육 과정 확대, 대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 진로교육 인력확충 및 역량강화, 학생 원스톱 서비스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6).

그런데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초·중등교육의 진로와 관련된 심리적인 변화나 학업에 대한 태도 개선 등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김승보 외, 2013 등). 그러나 대학교육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와 직접 관련된다는 점에서 진로교육의 성과 역시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의 추진 현황과 이것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성과를 살펴 보고, 관련된 정책의 시사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국내 대학은 일자리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 졸업생들을 위해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김정희 외, 2016). 진로교육의 목적은 진로준비를 통하여 진로장애 혹은 진로장벽을 개선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다(김봉환, 1997). 진로장애 혹은 진로장벽이란,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계획의 불확실이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진로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말한다(손은령, 2001).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개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대와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9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진로 측면으로 확대한 것으로 진로결정에서 자신의 적성과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 또는 신념을 뜻한다(Taylor & Betz, 1983). 이러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설문조사 등 심리적인 변화로 확인될 수 있는데, 진로목표 선택, 문제해결, 미래계획 항목 등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이기학 외, 2000).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므로 대학교육 단계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성과도 단순한 심리적 변화보다 노동시장 이행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진로교육을 통한 노동시장 이행의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나 성과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Katzman(ed.), 1995). 대학 당국도 진로와 취업 관련 부서를 두고, 진로교육과 관련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김정희 외, 2016).

진로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지도나 진로 관련 교과목 개설, 취업 멘토링, 취업캠프, 취업특강, 취업동아리, 진로취업 상담프로그램, 현장체험(인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재호 외, 2015). 이 중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은 취업상담과 면접 클리닉, 취업 관련 교과목, 취업 동아리 참여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이영대 외, 2007; 강원준 외, 2008). 진로교육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유익하다고 인식한 프로그램일수록 취업 가능성과 정규직으로의 진입 가능성, 취업 후 일자리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어 프로그램 질에 대해 강조하는 분석 역시 보고되고 있다(노경란 외, 2011). 또한 유익한 진로 관련 교과목과 직장체험 등은 정규직 취업에 도움이 되지만, 무익한 프로그램 참여는 취업에 오히려 역효과를 내거나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신혜숙 외, 2013).

대학생의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하여 실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학 입학 단계에서 중요한 요인인 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취업이나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희삼, 2010; 박천수, 2016). 대학의 특성인 대학 지명도나 소재지와 전공, 그리고 고등학교 계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접근 역시 다양하다(윤수경 외, 2014; 박환보, 2011). 인적자본 축적이라는 관점에서 대학생의 자격 취득은 일반적으로 취업에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되고 있으나, 임금이 미치는 효과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기성 외, 2017). 해외어학연수와 평균 평점 역시 취업과 임금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남기곤 외, 2011). 직업훈련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취업이나 임금이 주는 영향에 대하여 상이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명확한 효과를 확정하기 어렵다(조준모 외, 2010; 정주연 외, 2011). 대학생이 처한 사회경제적인 여건으로 여겨지는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에 대한 영향은 일반적으로 고학력과 높은 소득이 취업이나 임금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변금선, 2015). 같은 맥락에서 재학 중 근로경험은 학점관리 등의 불리로 인하여 취업이나 임금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성훈, 2011; 안준기 외, 2011).

이처럼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심리적인 측면이나 취업 가능성이라

는 측면에서만 이루어져, 임금 등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았다.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연구도 진로교육 프로그램 추진 관점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대학 졸업생들이 재학 중에 참가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가 현황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진로교육 참여가 대학 졸업자의 취업과 임금 등 노동시장으로 이행에 미치는 성과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과 변수

진로교육은 ‘다양한 활동과 학습을 통해 진로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고 진로선택을 돕고자 대학과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반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서유정 외, 2016: 13). 이러한 진로교육 정의와 관련하여 2014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3GOMS)에 진로 및 취업을 배우는 진로교과, 일자리 체험 프로그램(인턴 포함), 직업심리검사, 취업박람회, 개인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 면접기술이나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취업캠프, 기타 진로활동 등에 대한 설문(F12)이 포함되어 있다.¹⁾ 설문은 대학생의 해당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와 이 참여가 참여자에게 진로선택과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 참여한 프로그램별 효과, 도움 개수, 도움을 받은 프로그램별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연구방법은 2013GOMS 자료를 기반으로 계량경제학적인 기법을 주로 이용한다.²⁾ 연구대상은 교육 특성이나 교육 연한의 차이 등으로 전문대학 졸업생과 교육대학 졸업생은 진로선택의 내용과 진로교육이 주는 영향에서 차이가 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대학 졸업자로 한정하였다.³⁾ 분석 대상자는 2012년 여름과 2013년 겨울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졸업시점에서 연령이 30세 미

1) 괄호 속에 포함된 대문자와 숫자 조합은 조사(2013GOMS)의 설문번호이다.

2) 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은 STATA(V. 14)이다.

3) 전문대학 졸업자는 대학 졸업자와 진로교육 참여율이나 실제 도움의 정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만인 남자 6,393명과 여자 5,483명(총 11,876명; 가중치 적용 291,467명)이다.⁴⁾

설명 변수는 인적 속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에서 제공한 연령(최소 22.1세)과 성별(여자=0)을 포함하였다.⁵⁾ 교육경력과 관련된 변수로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1)과 졸업한 학교의 소재권역과 전공계열이 있다.⁶⁾⁷⁾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준비와 관련된 변수로 졸업 평균 평점(F14)은 대학별로 만점 기준이 달라 백분위로 환산(만점 1.00)하여 도출하였다.⁸⁾ 졸업 전 취업 목표(J1), 구직활동 경험(K1), 직업능력 향상 교육 또는 훈련(L1), 자격증 보유(M1), 대학 재학 중 일자리 경험(H1), 어학연수 경험(I1), 시험 준비 경험(N1)에 대한 변수는 응답을 바탕으로 있음과 없음(=0)으로 변환한다. 경제활동참가의 긴박성이나 주거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와 동거 여부(P4)를 그렇다(=1)를 기준으로 변환하고, 혼인(P1)은 기혼(=1)을 중심으로 여타(=0)로 정리한다.⁹⁾ 현재 부모의 월평균 소득수준(P11)은 각각의 값을 바탕으로 더미변수로 도출한다.

임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직무만족 수준(A32-2, D31-2)과 전공일치 정도(A35, D34)는 일에 대한 심리적인 상태와 적응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포함하였다.¹⁰⁾¹¹⁾ 기업 규모(A5, D6)는 기업체 단위로 설문에서 주어진 규모 수준이 연속변수의 성격이 있어 그대로 활용한다.¹²⁾ 일자리에서 노동조합(A41, D38)

4) 조사 원자료에서 부여한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전체 291,467명(남자 150,609명과 여자 140,858명)이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층을 29세 이하로 보고 있고, 진로교육이 청년층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여 졸업시점에서 30세 미만을 연구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전체 표본(303,032명, 표본 기준 12,765명)을 감안하면 거의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하고 있다.

5) 임금 분석을 위하여 연령 제곱 변수도 생성하였다(연령 제곱=연령×연령/100).

6)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중은 전체 5.5% 수준인데, 서울권(2.3%)과 경인권 소재 대학(5.0%)은 낮으나 호남권(8.6%)과 영남권(7.5%)에서 높다.

7) 학교 소재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권(28.39%)이 많고 호남권(10.82%)이 적다.

8) 4.5만점(85.2%)이 대다수이지만 4.3만점(8.0%)과 4.0만점(3.5%)도 상당수이고, 무응답(3.3%)도 적지 않는 편이다(최소 평균 평점, 0.38).

9) 이들 변수는 연령과 상관관계가 높아 결혼 여부는 정의 상관관계(0.096)를 보이고, 부모와 동거는 부의 상관관계(-0.047)를 보이고 있다.

10)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를 동시에 감안하여 동일한 변수로 전환하였다.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가 달라 첫 일자리 정보(D)가 별도로 제시된 경우(26.8%)는 시점의 차이가 있어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11) 전공불일치는 22.9%에 이르고 있으나, 직무불만족은 7.5%로 낮은 수준이다.

12) 기업체를 기준으로 1) 1~4명, 2) 5~9명, 3) 10~20명, 4) 21~49명, 5) 50~99명, 6)

의 있음(=1)을 중심으로 변환한다.¹³⁾ 일자리의 산업, 직업, 그리고 사업체 유형은 다른 사례를 감안하여 더미변수로 전환한다.¹⁴⁾

〈표 1〉 주요 설명 변수(일부 생략)

변수	최대	평균	표준 편차	변수	최대	평균	표준 편차
남자	1.00	0.538	0.499	첫일자리임금 [#]	500.0	197.460	85.602
연령	31.92	26.392	1.774	기업규모 ^{##}	9.00	5.753	2.804
직업계고	1.00	0.055	0.229	노동조합	1.00	0.175	0.380
서울권대학	1.00	0.284	0.451	직무만족도 ^{###}	5.00	3.575	0.805
경인권대학	1.00	0.201	0.400	전공일치도 ^{###}	5.00	3.349	1.239
충청권대학	1.00	0.182	0.385	부모소득 없음	1.00	0.038	0.192
영남권대학	1.00	0.226	0.418	100만 원 미만	1.00	0.024	0.153
호남권대학	1.00	0.108	0.311	200만 원 미만	1.00	0.098	0.297
평균평점	1.00	0.817	0.085	300만 원 미만	1.00	0.203	0.402
취업목표	1.00	0.455	0.498	400만 원 미만	1.00	0.231	0.422
구직활동	1.00	0.443	0.497	500만 원 미만	1.00	0.183	0.386
직업훈련	1.00	0.115	0.319	700만 원 미만	1.00	0.123	0.328
일자리 경험	1.00	0.639	0.480	1,000만 원 미만	1.00	0.056	0.231
어학연수	1.00	0.151	0.358	1,000만 원 이상	1.00	0.043	0.203
자격보유	1.00	0.577	0.494	민간기업	1.00	0.455	0.498
시험 준비	1.00	0.177	0.381	경영지원직	1.00	0.230	0.421
기혼자	1.00	0.038	0.192	제조업	1.00	0.141	0.348
부모와 동거	1.00	0.595	0.491	첫 일자리	1.00	0.268	0.443

주: 진로교육 관련 변수는 진로교육 참여 현황 참조.

자료: 2013GOMS1(n=11,876, #9,205, ##8,084, ###8.476).

100~299명, 7) 300~499명, 8) 500~999명, 9) 1,000명 이상이다.

13) 계열별로 취업기업의 노동조합 비중을 보면 교육계열(33.0%), 의약계열(20.2%), 공학계열(20.1%)에서 높고, 예체능계열(7.9%)과 인문계열(14.5%)에서 낮다.

14) 산업(A6, D4)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부분을 중심으로 1차 산업(1~2), 제조업(3), 건설인프라산업(4~6), 판매운수숙박업(7~9), 사업서비스업(10~14), 공공서비스업(15~17), 개인가구국제서비스업(18~21)으로 분류하고 더미변수로 전환한다. 직업(A7, D5)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따라 중분류를 기준으로 관리직(1), 경영지원직(2~3), 사회서비스직(4~8), 개인서비스직(9~13), 건설제조직(14~22), 농림직(23), 군인(24)으로 구분한다. 사업체 유형(A8, D8)은 민간기업(1), 외국기업(2), 정부투자기관이나 공부기관 등 공공기관(3~5), 교육연구기관(6~7), 여타(8~9)로 구분한다(박천수, 2015).

종속변수는 청년층의 빈번한 노동이동을 감안하여 졸업 이후에 정규직으로 일한 경험이 한번(A14, D13, E11)이라도 있으면 정규직 취업으로 보았다.¹⁵⁾¹⁶⁾ 임금은 첫 일자리에서 월평균 급여(A31, D30)를 기준으로 한다.¹⁷⁾ 비임금근로자는 그 결정요인이 임금근로자와 본질적으로 상이하다는 판단에 따라 임금 분석에서 제외한다.¹⁸⁾¹⁹⁾

IV. 연구 결과

1. 진로교육 참여와 도움

대학 졸업생이 재학 중에 참여한 진로교육 참여 개수를 보면 총 8개 가운데 평균 2.5개인데, 남자 졸업생보다 여자 졸업생이 약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전혀 참여하지 않는 졸업생이 1/4 정도(24.0%)로 상당하고, 7개 이상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는 3.0%로 소수이다.

진로교육 프로그램별로 보면 직업심리검사(53.2%)와 진로교과 수강이 많은 편이나, 직접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인 취업캠프, 직장체험, 그리고 취업박람회 참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취업박람회만 남자 졸업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가장 졸업생의 참여 비중이 높은 프로그램일 지라도 절반 정도의 졸업생만 참여하고 있어, 진로교육 기회 확대 필요성을 제

15) 청년층의 일자리 이동이 빈번하며 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이동이 가능성이 가장 높으므로 한 번이라도 정규직 경험이 있는 경우에 정규직으로 보았다(이병희, 2003: 90). 현재 일자리가 정규직이라고 보고한 사례는 가중치 기준 153,844명으로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56.3%)이 약간 높다.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정규직(34,154명)인 사례와 졸업 후 첫 일자리 및 현재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에서의 정규직 경험(3,779명)도 포함된다. 졸업생 가운데 정규직으로의 취업 경험자는 재직자를 포함하여 175,145명이다.

16) 임금근로자 수는 가중치로 265,635명이며, 비임금근로자는 8,143명이다.

17) 졸업 후 첫 일자리를 기준으로 보았는데, 현재 일자리가 첫 자리인 경우가 많아 이를 포함하였다. 소득에 대한 변수 규정과 전환은 취업자 임금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18) 비임금근로자는 투자된 자본의 크기가 수입(소득)에 미칠 영향이 크거나, 가족 수입으로 전환이 발생하는 등 임금근로자의 소득결정요인과 상이하하다(박천수, 2015).

19) 현재 일자리에서 비임금근로자는 현재 일자리 재직자의 4.3%(9,561명) 수준인데, 남자의 비중이 약간 높다.

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이 소재한 권역별로 충청권 대학의 졸업생(2.7개)이 가장 많이 진로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호남권(2.1개) 소재 대학 졸업생의 프로그램 참여 개수가 가장 적다. 충청권은 취업박람회를 제외하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참여율이 가장 높는데, 상대적으로 진로교과와 면접·이력서 프로그램 참여가 많다. 서울은 취업박람회와 직업체험 참여가 평균을 상회하여 많은 편이나, 진로교과와 취업캠프는 평균보다 적은 편이다. 졸업생 수가 가장 많은 영남권 대학 졸업생은 전체 평균과 유사하지만, 졸업생 수가 가장 적은 호남권은 진로교육 참여가 적으며 특히 취업박람회 참여 비중이 낮은 편이다.

〈표 2〉 성·권역별 대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와 비중

(단위: 개, %, 명)

	남자	여자	서울권	경인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전체
평균 개수	2.42	2.49	2.36	2.51	2.69	2.48	2.11	2.46
진로교과	46.6	49.5	42.7	49.5	54.2	49.1	43.8	48.0
직장체험	22.7	22.9	23.0	23.8	24.4	21.5	20.8	22.8
심리검사	50.1	56.6	51.4	53.0	58.4	53.2	48.8	53.2
취업박람회	38.8	33.0	39.8	34.6	36.4	36.3	28.5	36.0
진로상담	32.8	33.4	31.9	35.7	36.1	32.8	26.6	33.1
면접이력서	34.7	37.9	34.2	38.5	41.6	35.7	29.0	36.2
취업캠프	15.8	15.4	12.4	15.5	17.4	18.4	13.0	15.6
기타	0.5	0.9	0.9	0.5	0.7	0.8	0.4	0.7
학생 수	150,609	140,858	72,581	54,240	57,759	73,874	33,012	291,467

자료: 2013GOMS1(가중치 적용).

계열별로 평균 참여 개수를 보면, 공학(2.70)과 사회계열(2.66) 졸업생은 높고, 예체능(1.8)과 교육계열(1.9) 졸업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전혀 참여하지 않는 졸업생의 비율(프로그램 참여 졸업생 수/학생 수)을 계열별로 보면, 예체능계열(35.1%)과 교육계열(26.7%)은 높으나, 공학(20.2%)과 사회계열(20.5%)은 낮다.

사회계열은 진로교과, 직업심리검사, 진로상담, 면접 이력서, 취업캠프 프로그램 참여가 가장 많다. 이에 비하여 공학계열은 직장체험, 취업박람회 프로그

램 참여가 가장 많아 계열 특성을 보여준다. 면접 이력서 프로그램은 인문, 사회 그리고 의약계열 졸업생이 40% 이상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의약계열은 취업박람회 참여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계열은 진로상담과 면접 이력서 참여가 낮다.

〈표 3〉 전공 계열별 대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와 비중

(단위: 개, %, 명)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전체
평균 개수	2.54	2.66	1.90	2.70	2.37	2.14	1.80	2.46
진로교과	50.1	51.8	41.0	50.7	45.2	42.7	38.5	48.0
직장체험	19.4	23.7	22.3	26.2	21.8	23.0	17.6	22.8
심리검사	54.8	56.4	51.3	53.5	52.7	50.5	45.9	53.2
취업박람회	35.3	38.5	19.9	46.8	39.5	17.5	18.2	36.0
진로상담	36.0	37.3	24.8	34.2	30.1	27.1	26.4	33.1
면접이력서	40.6	40.6	21.2	38.0	33.2	40.2	24.7	36.2
취업캠프	16.7	16.7	8.4	19.9	14.2	12.5	8.1	15.6
기타	0.9	0.9	0.9	0.6	0.8	0.6	0.3	0.7
학생 수	36,019	83,612	15,004	73,365	35,639	15,059	32,769	291,467

자료: 2013GOMS1(가중치 적용).

학생 개인별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한 비율은 평균 72% 수준이며, 도움이 된 프로그램 개수를 더하면 학생 1인당 평균 1.8개 수준이다. 프로그램별로 도움 비중(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졸업생 수/프로그램 참여 졸업생 수)을 보면, 참여가 낮은 직장체험과 면접 이력서 프로그램의 도움 비중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졸업생이 참여하는 비중이 높은 직업심리검사와 진로교과의 도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개 이상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계열은 공학계열이 유일하고, 나머지 계열은 2개에 미달하고 있으며 예체능계열은 거의 1개 수준이다. 특히 예체능계열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졸업생이 절반(54.2%)을 상회하고 있다.

계열에 따라 참여 프로그램이 도움 되었다는 비중을 보면, 교육계열(75.7%)과 공학계열 졸업생(75.3%)에서 높으나, 예체능계열(63.5%)과 인문계열(70.5%)

은 낮은 편이다. 인문, 사회, 공학계열은 직장체험, 면접·이력서 프로그램이 도움 되었다는 비율이 80%를 넘고 있다. 교육계열은 직장체험은 물론 진로상담과 취업캠프 프로그램이 도움 되었다는 비중이 높다. 자연계열은 면접·이력서 프로그램이, 의약계열은 직장체험과 취업캠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하여 예체능계열은 80%를 넘은 프로그램이 없는데, 특히 취업박람회나 취업캠프 프로그램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는 예체능계열 재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계열별 진로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4〉 전공 계열별 대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도움 개수와 도움 비중

(단위: 개, %, 명)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전체
도움 개수	1.79	1.93	1.44	2.03	1.67	1.54	1.14	1.77
진로교과	66.8	70.4	76.8	76.0	65.6	75.3	64.2	70.8
직장체험	84.1	84.9	85.2	83.9	79.0	84.1	70.2	82.4
심리검사	68.0	67.3	72.3	72.1	67.3	57.7	60.0	67.8
취업박람회	63.4	65.0	61.3	68.1	61.2	52.7	54.8	64.3
진로상담	66.1	73.4	80.7	73.8	69.4	78.7	65.8	71.8
면접이력서	80.1	80.7	78.6	82.3	85.2	79.2	70.8	80.7
취업캠프	76.5	74.7	80.6	78.4	75.5	81.6	59.9	75.7
기타	75.0	88.8	69.9	49.1	56.3	100.0	11.5	72.8
학생 수	36,019	83,612	15,004	73,365	35,639	15,059	32,769	291,467

자료: 2013GOMS1(가중치 적용).

한편 30살 미만(졸업 시점) 대학 졸업생 가운데 1/3 이상(37.7%)이 재학 중에 진로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거나 참여는 하였더라도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대학교로부터 진로선택이나 일자리 이행을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이 졸업생의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F13)에서 진로 관련 만족도(3.22점)는 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3.57점)나 전공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3.54점) 등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로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²⁰⁾ 이는 진로교육을 위한 개별 대학(계열) 단위별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는 물론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 정규직 취업 효과

졸업시점에 30세 미만인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이 졸업 후 정규직 취업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분석(표 5)으로 살펴보았다.²¹⁾ 정규직 취업 경험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성별로 남자의 취업 가능성이 아주 조금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²²⁾ 교육계열 졸업생을 기준으로 정규직 취업은 자연계열 졸업생이 가장 어렵는데, 특히 여자 자연계열 졸업생이 더 곤란에 직면해 있다.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 역시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낮으며, 역시 여자 졸업생이 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회계열과 공학계열 졸업생은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 특히 남자 졸업생이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하여 의약계열 졸업자는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상당히 높는데, 여자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교육계열에 비하여 2배(1.71)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호남권 소재 대학 졸업자를 기준으로 충청권 소재 대학 졸업자가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어서 경인권 소재 대학 졸업자도 체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영남권 대학 졸업자는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높지만, 여자 졸업생은 취업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서울권은 성별로 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진로선택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²³⁾ 구직활동과 직접 관련된 직업훈련(50.8%), 직업탐색(41.4%), 자격 취득(24.8%), 재학 중 일자리 경험(19.4%), 어학연수(18.2%), 취업목표(6.2%) 순으로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

20) 진로 관련 상담 및 지원제도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3.7%), 불만족(15.6%), 보통(41.4%), 만족(33.7%), 매우 만족(5.5%)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 추정식은 지면 관계로 생략(Wooldridge, 2013: 585 참조)한다. 가중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변수 간 상관계수는 남성과 나이(0.595)를 제외하고 모두 0.4를 하회하고 있다.

22) 로짓모형에서 종속변수가 이산이므로 더미변수 계수는 가능성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이성우 외, 2005: 71). 남자 졸업생(63.9%)이 여자 졸업생(56.5%)보다 정규직 취업 비중이 높지만 성별 차이보다 계열, 연령 등의 요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23) 조사 시점에서 여자는 대학원 등 재학자의 다수가 서울 소재 대학(45.7%) 출신이지만 남자는 서울 소재 대학 출신(39.8%)이 더 적은 수준이다(SQ1). 시험 준비자 경험자(N1)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만이 절반을 상회(52.5%)하고 있다.

〈표 5〉 대학 졸업생 정규직 취업 결정요인(I)-진로교육 참여 횟수

		전 체		남 자		여 자	
		B	S.E	B	S.E	B	S.E
인적	남자	-0.019*	0.0111				
	연령	0.130***	0.0031	0.187***	0.0041	0.047***	0.0049
진로	직업계고	0.219***	0.0176	0.187***	0.0238	0.265***	0.0267
	참여 활동 수	0.052***	0.0021	0.052***	0.0029	0.056***	0.0030
계열	인문계열	-0.264***	0.0216	-0.077**	0.0371	-0.316***	0.0269
	사회계열	0.277***	0.0196	0.529***	0.0327	0.148***	0.0249
	공학계열	0.242***	0.0207	0.380***	0.0327	0.221***	0.0298
	자연계열	-0.437***	0.0214	-0.362***	0.0352	-0.429***	0.0275
	의약계열	0.746***	0.0265	0.261***	0.0453	0.997***	0.0331
	예체능계열	-0.177***	0.0220	-0.012	0.0373	-0.217***	0.0277
학교 소재지	서울권	-0.038***	0.0147	0.054***	0.0210	-0.096***	0.0210
	경인권	0.050***	0.0153	0.122***	0.0216	-0.01	0.0220
	충청권	0.147***	0.0150	0.237***	0.0212	0.066***	0.0213
	영남권	0.055***	0.0143	0.209***	0.0202	-0.108***	0.0205
구직 준비	평균평점	-0.023	0.0501	0.019	0.0682	-0.122	0.0751
	취업목표	0.061***	0.0086	0.091***	0.0122	0.033***	0.0122
	구직활동	0.346***	0.0085	0.281***	0.0124	0.393***	0.0120
	직업훈련	0.411***	0.0136	0.461***	0.0201	0.362***	0.0187
	자격보유	0.221***	0.0085	0.169***	0.0120	0.268***	0.0124
	일경험	0.177***	0.0086	0.241***	0.0120	0.109***	0.0125
	어학연수	0.167***	0.0117	0.124***	0.0179	0.200***	0.0157
	시험준비	-0.868***	0.0113	-0.922***	0.0164	-0.842***	0.0158
가족	기혼자	0.036	0.0220	0.607***	0.0363	-0.393***	0.0303
	부모와 동거	-0.329***	0.0087	-0.465***	0.0120	-0.225***	0.0127
부모 소득	없음	0.250***	0.0241	0.263***	0.0324	0.258***	0.0367
	100만 원 미만	-0.313***	0.0273	-0.222***	0.0377	-0.432***	0.0414
	200만 원 미만	-0.043***	0.0155	-0.128***	0.0209	0.050**	0.0237
	400만 원 미만	0.077***	0.0122	-0.004	0.0173	0.180***	0.0175
	500만 원 미만	0.115***	0.0130	-0.041**	0.0187	0.270***	0.0183
	700만 원 미만	0.090***	0.0146	0.02	0.0213	0.181***	0.0204
	1,000만 원 미만	-0.040**	0.0194	-0.253***	0.0288	0.170***	0.0266
	1,000만 원 이상	-0.065***	0.0214	0.086***	0.0305	-0.228***	0.0312
상수항	-3.395***	0.0942	-5.126***	0.1341	-1.248***	0.1453	
표본/Pseudo R ² /LR		11,479/0.0650/24,657.7		6,196/0.0753/14,381.0		5,283/0.0632/11,731.6	

주: *** p<0.01, ** p<0.05, * p<0.1.

자료: 2013GOMS1.

〈표 6〉 대학 졸업생 정규직 취업 결정요인(II)-진로교육 참여 내용

		전 체		남 자		여 자	
		B	S.E	B	S.E	B	S.E
인적	남자	-0.022*	0.0111				
	연령	0.127***	0.0031	0.185***	0.0041	0.045***	0.0049
진로 교육 참가	직업계고	0.218***	0.0176	0.181***	0.0238	0.271***	0.0267
	진로교과	0.01	0.0095	0.033**	0.0135	-0.018	0.0136
	직장체험	0.071***	0.0102	0.141***	0.0147	0.015	0.0144
	직업심리검사	-0.091***	0.0093	-0.164***	0.0135	-0.017	0.0131
	취업박람회	0.149***	0.0096	0.178***	0.0137	0.139***	0.0136
	개인·집단상담	-0.040***	0.0102	0.019	0.0149	-0.094***	0.0142
	면접, 이력서	0.186***	0.0104	0.179***	0.0152	0.200***	0.0145
	취업캠프 기타 활동	0.131***	0.0126	0.017	0.0180	0.246***	0.0180
		-0.052	0.0474	0.212***	0.0792	-0.109*	0.0596
계열	인문계열	-0.287***	0.0217	-0.105***	0.0373	-0.336***	0.0270
	사회계열	0.255***	0.0197	0.501***	0.0328	0.127***	0.0250
	공학계열	0.208***	0.0208	0.343***	0.0329	0.185***	0.0299
	자연계열	-0.465***	0.0215	-0.382***	0.0354	-0.459***	0.0276
	의약계열	0.728***	0.0265	0.245***	0.0454	0.978***	0.0333
	예체능계열	-0.184***	0.0220	-0.015	0.0374	-0.222***	0.0277
학교 소재 지	서울권	-0.044***	0.0148	0.035*	0.0211	-0.097***	0.0211
	경인권	0.049***	0.0154	0.114***	0.0216	-0.008	0.0221
	충청권	0.148***	0.0150	0.227***	0.0212	0.073***	0.0214
	영남권	0.053***	0.0143	0.205***	0.0203	-0.113***	0.0205
구직 준비	평균평점	-0.036	0.0501	0.003	0.0683	-0.132*	0.0752
	취업목표	0.056***	0.0086	0.082***	0.0123	0.028**	0.0123
	구직활동	0.349***	0.0085	0.287***	0.0124	0.395***	0.0120
	직업훈련	0.415***	0.0136	0.468***	0.0202	0.364***	0.0187
	자격보유	0.222***	0.0086	0.171***	0.0120	0.267***	0.0124
	일경험	0.183***	0.0086	0.242***	0.0121	0.121***	0.0126
	어학연수	0.165***	0.0117	0.113***	0.0180	0.200***	0.0158
	시험준비	-0.863***	0.0113	-0.921***	0.0165	-0.832***	0.0158
가족	기혼자	0.033	0.0220	0.617***	0.0363	-0.400***	0.0304
	부모와 동거	-0.328***	0.0087	-0.467***	0.0121	-0.221***	0.0128
부모 소득	부모소득 없음	0.243***	0.0241	0.260***	0.0325	0.239***	0.0367
	100만 원 미만	-0.310***	0.0273	-0.204***	0.0378	-0.437***	0.0415
	200만 원 미만	-0.040***	0.0155	-0.128***	0.0209	0.056**	0.0237
	400만 원 미만	0.082***	0.0123	0.002	0.0174	0.188***	0.0176
	500만 원 미만	0.116***	0.0130	-0.041**	0.0188	0.273***	0.0183
	700만 원 미만	0.095***	0.0146	0.02	0.0214	0.194***	0.0205
	1,000만 원 미만	-0.031	0.0195	-0.230***	0.0288	0.173***	0.0266
	1,000만 원 이상	-0.072***	0.0214	0.081***	0.0306	-0.226***	0.0313
상수항	-3.277***	0.0944	-4.994***	0.1345	-1.167***	0.1456	
표본/Pseudo R ² /LR	11,479/0.0666/25,286		6,196/0.0774/14,780.0		5,283/0.0651/12,161.5		

주: *** p<0.01, ** p<0.05, * p<0.1.

자료: 2013GOMS1.

고 있다. 공무원이나 교원 임용 등 시험 준비 경험자의 정규직 취업(-58.0%)은 매우 적은 편이다(김향덕·이대중, 2018). 결혼은 정규직 취업 가능성에서 성별로 매우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데, 남자(83.5%)는 크게 높이나 여자(-32.5%)는 상당히 낮추고 있다. 부모와 동거하는 대졸자는 전반적으로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낮다.

부모의 소득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2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계와 700만 원 이상에서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은 편이다. 고소득 부모를 가진 졸업생은 취업보다 진학 등 다른 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저소득 가계의 졸업생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준비가 미흡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 등 직업계 고등학교를 거친 대학 졸업생은 상대적으로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높는데, 특히 여자 졸업생의 취업 가능성이 높다. 진로교육 참여 개수가 늘어날수록 뚜렷하게 대학 졸업생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5.3%)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대학생이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에 참여할수록 정규직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별 진로교육 프로그램별로 취업에 미치는 영향(표 6)을 보면 직업심리검사와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참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직업심리검사는 남자 졸업생에서, 상담프로그램은 여자 졸업생에서 그 영향이 보다 뚜렷하다. 이에 비하여 면접기술과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20.5%), 취업박람회(16.0%), 취업캠프(14.0%), 인턴 등 직장체험 프로그램(7.3%) 순으로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 졸업생은 면접기술과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취업박람회, 인턴 등 직장체험 프로그램, 진로교과 순으로 효과가 높다. 여자 졸업생은 취업캠프, 면접기술과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취업박람회 순이다.

진로교육 도움 개수를 기준으로 보면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한 활동 개수가 많을수록 정규직 취업 가능성도 더 크게 뚜렷하다(추정식 생략).²⁴⁾ 개별 활동의 만족도 중 진로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프로그램은 취업박람회(23.8%),

24) 도움된 프로그램이 증가할 때마다 정규직 취업 가능성(8.9%)이 체계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가 개수보다 도움 개수의 효과가 3.6%p 크다. 성별로는 남자 졸업생(4.9%p)이 여자 졸업생(2.1%p)보다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면접기술과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19.4%), 진로교과(9.7%), 취업캠프(9.7%), 집단상담(5.1%), 직장체험(3.0%) 순이다(추정식 생략).²⁵⁾ 성별로 남자는 진로교과목, 취업박람회, 개인 및 집단 상담 순이고, 여자는 면접기술과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취업박람회, 취업캠프 순이다. 한편 직업심리검사는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는데, 남자에서 그 영향이 보다 크고 분명하다.²⁶⁾

3. 취업자 임금효과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참여가 대졸 취업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표본선택 편이를 감안한 임금 추정방식을 이용한다.²⁷⁾²⁸⁾ 설명변수는 진로교육 참가나 도움에 관한 변수를 포함하여 인적속성, 교육경험, 기업특성, 직무특성 등이다.²⁹⁾ 월평균 소득은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4,580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극단적인 값을 제외하고 39만 원에서 480만 원을 로그로 전환한다.³⁰⁾ 일자리가 아르바이트라고 응답한 사례(A2, E1=1)는 일시적으로 종사하여, 조사시점마다 임금이나 직종이 상이하고 선택의 기준도 다를 것이므로 제외한다.³¹⁾

회귀분석 결과는 간단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³²⁾ 졸업 시점에 30세 미만인

-
- 25) PSM 방식으로 각 프로그램별 평균을 비교하면 취업박람회(3.9%p), 면접·이력서 작성(3.3%p), 진로교과(1.5%p), 취업캠프(1.3%p), 직장체험(0.06%p), 심리검사(-2.9%p), 개인 및 집단 상담(-4.9%p) 등이다(이진이 외, 2017).
- 26) 직업심리검사는 일반적으로 진로선택을 고민하는 첫 단계의 활동이므로, 취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학생일수록 직업심리검사를 선택하고 검사결과에 만족하여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된다.
- 27) 추정된 수식은 Wooldridge(2013 : 617-618)을 이용하였다(지면관계로 생략).
- 28) 헤크만 표본 모형(Heckman selection model)은 통계패키지(Stata)에서 가중치 적용이 가능한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s)을 이용한다(Heckman, 1976). 표본선택 방정식은 임금함수에 포함된 변수 전체와 표본선택에는 영향을 미치나 임금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 변수인 취업목표 보유, 구직활동 경험, 그리고 시험 준비 경험 등을 설명변수에 추가하였다(Wooldridge, 2013: 619 참조).
- 29) 변수 간 상관계수는 남성과 나이(0.595)를 제외하고 모두 0.4를 하회하고 있다.
- 30) 기입하는 과정에서 착오 가능성이나 연봉으로 오해한 사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하 1%씩을 삭제하고 나머지(98%)를 이용한다.
- 31) 전체 졸업생 가운데 현재 일자리와 첫 일자리에서 11.66%가 아르바이트라고 응답하고 있는데, 일의 임시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취업자로 고려하지 않았다.

〈표 7〉 대학 졸업생 임금 결정요인#

		전 체		남 자		여 자	
		B	S.E	B	S.E	B	S.E
인적	남자 연령	0.081***	0.0021				
		0.025***	0.0006	0.023***	0.0007	0.027***	0.0010
진로	직업계고 참여활동 수	-0.042***	0.0028	-0.049***	0.0036	-0.050***	0.0048
		0.002***	0.0003	0.002***	0.0005	0.000	0.0006
계열	인문	-0.071***	0.0030	-0.047***	0.0043	-0.094***	0.0052
	사회	-0.033***	0.0023	-0.026***	0.0028	-0.057***	0.0047
	교육	0.078***	0.0046	0.064***	0.0070	0.019***	0.0069
	자연	-0.049***	0.0029	-0.035***	0.0038	-0.061***	0.0051
	의약	0.149***	0.0040	0.166***	0.0067	0.065***	0.0063
	예체능	-0.103***	0.0032	-0.059***	0.0044	-0.122***	0.0055
학교 소재 지	서울권	0.068***	0.0023	0.064***	0.0031	0.072***	0.0036
	충청권	-0.023***	0.0023	-0.022***	0.0031	-0.020***	0.0037
	영남권	-0.023***	0.0022	0.007**	0.0029	-0.059***	0.0035
	호남권	-0.053***	0.0027	-0.038***	0.0037	-0.084***	0.0043
구직	평균평점	0.256***	0.0088	0.177***	0.0115	0.346***	0.0147
	직업훈련	0.009***	0.0021	0.011***	0.0028	0.001	0.0033
	자격보유	0.021***	0.0015	0.029***	0.0020	-0.004	0.0025
	재학직업경력	-0.001	0.0015	-0.009***	0.0020	0.008***	0.0024
가족	기혼자	0.019***	0.0036	0.009**	0.0044	0.056***	0.0069
	부모와 동거	-0.038***	0.0015	-0.044***	0.0020	-0.024***	0.0024
기업 직무	기업규모	0.036***	0.0003	0.038***	0.0004	0.034***	0.0005
	노동조합	0.054***	0.0018	0.062***	0.0023	0.036***	0.0030
	직무만족도	0.033***	0.0010	0.042***	0.0013	0.019***	0.0015
	전공일치도	0.008***	0.0007	0.004***	0.0009	0.008***	0.0011
	첫 일자리	-0.210***	0.0019	-0.208***	0.0027	-0.193***	0.0028
부모 소득	부모소득 없음	-0.007*	0.0040	0.005	0.0050	0.006	0.0074
	100만 원 미만	-0.006	0.0054	-0.030***	0.0070	0.087***	0.0088
	200만 원 미만	-0.039***	0.0028	-0.051***	0.0037	-0.007	0.0046
	400만 원 미만	-0.019***	0.0023	-0.015***	0.0031	-0.010***	0.0036
	500만 원 미만	-0.014***	0.0022	-0.019***	0.0030	0.005	0.0033
	700만 원 미만	0.039***	0.0026	0.031***	0.0037	0.049***	0.0038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0.035*** 0.046***	0.0035 0.0039	0.009* 0.059***	0.0051 0.0051	0.065*** 0.065***	0.0051 0.0067
상수항	4.146***	0.0021	4.325***	0.0253	4.162***	0.0302	
람다(λ)	-0.0043	0.0041	-0.0096**	0.0047	-0.221***	0.0040	
절단/비절단/Wald	1,932/5,432/85,853		876/3,149/38,990		1,056/2,283/28,733		

주: *** p<0.01, ** p<0.05, * p<0.1.

사업체 유형, 산업과 직업 등 16개 더미변수 생략.

자료: 2013GOMS1.

32) 추정결과, 성별 추정에서 헤크만 람다(λ)는 유의미하게 음수 값을 보이고 있어, 표본추출 편이가 임금추정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표본으로 추출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임금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Heckman, 1979).

대학 졸업 임금근로자는 같은 조건하에 남자 졸업생이 여자 졸업생보다 평균적으로 8.1% 정도 임금수준이 더 높다. 공학계열을 기준으로 의약계열과 교육계열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남자 졸업생에서 이러한 추세가 강하게 발견되었다. 대학 소재지는 경기권 대학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고, 이어서 영남권, 충청권 순이다.

평균 평점이 높을 경우에 임금수준도 매우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여자 졸업생에서 효과가 크다. 취업 준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자격증 취득과 직업훈련도 임금상승에 기여하고 있으나, 남자 졸업생에게만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은 남자 졸업생의 임금은 낮추고, 여자 졸업생의 임금은 높이고 있다. 현재 일자리 이외에 첫 일자리를 가진 경우에 대한 변수로 시점 차이를 반영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결혼은 임금을 높이고 부모와 동거는 낮추는 경향을 보이는데, 결혼은 여자 졸업생에게 영향이 크고 부모와의 동거는 남자 졸업생에게 영향이 크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임금도 높아져 규모효과(scale effects)가 분명하며, 노동조합도 임금상승에 뚜렷하게 기여하고 있다. 직무만족이 높거나 전공이 일치하는 경우에도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부모의 소득은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부모의 소득 수준이 낮거나 높을수록 대학 졸업자의 평균적인 임금수준도 낮거나 높아지고 있다. 생략된 더미변수를 보면 기업 유형에서 공공분야보다 민간기업에서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구교육 관련 사업체는 임금수준이 낮다. 직업별로 높은 임금의 관리직종에 비해 개인서비스 직종은 낮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급여가 높고 개인이나 개인가구서비스업은 낮다.

진로와 관련하여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평균 4.2% 정도 낮은 수준인데, 남자 졸업생에서 차이가 보다 뚜렷하다. 진로교육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임금수준 역시 뚜렷하게 높아지고 있다. 진로교육 참여가 1회 증가할수록 임금수준이 0.2%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여자 졸업생은 효과가 없다.

진로교육 프로그램별 참가에 따른 영향을 보면 직장체험, 취업박람회, 취업캠프 참가는 임금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추정식 생략). 취업박람회와

직장체험 참가는 여자 졸업생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나, 취업캠프는 남자 졸업생에서만 뚜렷하다. 이에 비해 진로교과목 수강의 영향은 임금수준을 낮추고 있으며, 직업심리검사는 남자의 임금을 낮추고 있으나 여자는 유의미하게 높이고 있다.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참여는 남자의 임금을 낮추고 있으나, 여자의 임금수준은 높이고 있다. 반면 면접 및 이력서 프로그램에 참가한 여자 졸업생의 경우 임금이 낮아지고 있다.³³⁾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도움 되었다는 개수의 증가도 임금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추정식 생략).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임금수준이 0.4%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상승에 영향을 주는 참가 프로그램 중 도움이 되는 진로교육 활동은 직장체험, 직업심리검사, 취업박람회, 취업캠프이다(추정식 생략). 한편 개인 및 집단상담, 면접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은 도움이 되는 경우에도 임금수준의 저하가 발견된다.

V. 요약 및 논의

본고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3GOMS)를 이용하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이것이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성과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진로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졸업시점에서 3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전문대학과 교육대학 졸업생은 진로 설정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제외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은 학생들이 졸업 후 일자리 정착 곤란을 극복하고자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가장 많이 참여하는 직업심리검사도 겨우 절반(53.2%)을 상회하는 등 참여자가 적어 기회 확대가 요구된다. 참여한 프로그램 가운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평균 72% 수준이다. 그런데 참여도가 낮은 직장체험과 면접 이력서 프로그램은 도움 비중이 높으나, 참여도 높은 직업심리검사와 진

33) PSM 방식으로 프로그램별 월평균 급여를 비교하면 취업박람회(5.2만 원), 면접·이력서 작성(3.9만 원), 진로교과(0.02만 원), 취업캠프(0.01만 원), 직장체험(0.001만 원), 심리검사(-0.03만 원), 개인 및 집단 상담(-0.05만 원) 등이다(이진이 외, 2017).

로교과의 도움 비중은 낮다. 이에 따른 반영으로 재학 중 대학 교육에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서 진로 관련 상담과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8>로 요약된다. 대학생이 재학 중에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종류가 늘어나면, 졸업 후에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진로교육의 여러 활동을 통하여 일자리에 대한 정보는 물론 취업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횟수가 많은 참여자는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더욱 높다. 임금수준도 진로교육 참가 경험이 늘어날수록 체계적으로 높아지는데, 이는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고임금 직종으로의 입직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진로교육을 통하여 일자리에 관심과 정보탐색 기회가 늘어나며, 일자리 체험 등을 통하여 현장 적응이 용이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표 8> 대학 졸업생 진로교육 참여 (도움) 효과

(단위: %, ▲: 증가, ▽: 감소)

	정규직 취업 가능성			임금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진로교육 참여 횟수	5.3	5.3	5.8	0.2	0.2	-
진로교육 도움 횟수	8.3	9.5	7.5	0.4	0.3	0.4
진로교과(도움)	-(▲)	▲(▲)	-(▽)	▽(-)	▽(-)	▽(-)
직장체험(도움)	▲(▲)	▲(▲)	▲(-)	▲(▲)	▲(-)	▲(▲)
직업심리검사(도움)	▽(-)	▽(-)	-(-)	-(▲)	▲(▲)	▽(▲)
취업박람회(도움)	▲(▲)	▲(▲)	▲(▲)	▲(▲)	▲(▲)	▲(▲)
개인·집단상담(도움)	▽(▲)	-(▲)	▽(-)	▽(-)	▽(-)	▲(-)
면접/이력서(도움)	▲(▲)	▲(▲)	▲(▲)	-(▽)	▲(-)	▽(-)
취업캠프(도움)	▲(▲)	-(-)	▲(▲)	▲(▲)	▲(▲)	-(▲)
기타(도움)	-(▲)	▲(-)	-(▲)	▽(-)	▽(-)	▽(-)

주: * 유의수준 0.05 이하만 표시.

개별 프로그램으로 볼 때 직장체험, 취업박람회, 취업캠프 프로그램은 정규직 취업 가능성뿐만 아니라 임금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비하여 면접과 이력서 프로그램은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임금 상승에는 부정적이거나 제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이 참여하는 직업심리검사는 취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임금에는 약간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관련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졸업생의 취업 가능성은 물론 임금수준을 높이는 등 졸업생의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효과가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학교육에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기구에서 관련 조직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학생이 1/3을 상회하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도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로 관련 상담 및 지원제도에 대한 졸업생의 만족이 가장 낮은 것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경란 외(2011)나 이종구(2007)와 같이 대학은 진로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교육당국은 졸업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일정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도움 비중이 높은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는 정규직 취업을 높이지 못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 경우에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자 졸업생에서 직업심리검사는 참가자 전체의 임금을 높이지 못하지만,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상승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참가 현황에서 도움의 비중이 높은 프로그램은 참여 비중이 낮고, 도움의 비중이 낮은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불일치도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발견된 진로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개인이나 전공단위별 특화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집중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먼저 신입생부터 학점이 인정되는 진로교과목 수업을 통하여 진로방향 확인 등 개인별 상담으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으로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공학생에게는 직장체험, 취업박람회, 면접

기술과 이력서 작성, 취업캠프 프로그램을 활용해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반면 취업의 성과가 좋은 전공 계열의 학생에게는 직장체험을 통한 일자리 적응성을 높이고 기업 등 진로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취업박람회나 취업캠프에 참여할 기회를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임금상승을 유도한다.

전체적으로 대학 단계에서 진로교육 강화는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여, 고학력 청년의 실업을 줄이고 일부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원준·김종인·김정원(2008).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분석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 (1): 49~74.
- 교육부(2016).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통계연보』.
- 국회예산정책처(2016).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42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훈(2011). 「대학 재학 중 비정규노동과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 『한국교육학연구』 17 (2): 5~26.
- 김승보·진미석·한상근·이지연·이윤진(2013). 『초중등 진로교육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정희·정일환·정진철·주동범·이현민(2016). 「4년제 대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진로교육전담기구 현황 분석」. 『진로교육연구』 29 (4): 1~28.
- 김향덕·이대중(2018). 「공무원 시험 준비생 규모 추정 및 실태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28 (1). 한국국정관리학회.
- 김희삼(2010). 『학업성취도, 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남기곤·윤진호·이시균(2010). 「대학 재학 중 활동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 는 효과」. 『경제발전연구』 16(1): 143~172.
- 노경란·박용호·허선주(2011). 「대학 재학 중 취업 및 진로개발 서비스 경험 이 대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49(1): 63~92.
- 문소윤·강인호(2012). 「호텔 기업의 인턴십 만족도가 기업이미지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7(1): 107~130.
- 박천수 외(2012). 『직업능력개발의 비전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천수(2015). 「대학 졸업 임금근로자의 희망임금 충족과 고용」. 『노동정책연구』 15(1): 83~110.
- _____(2016).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청년층의 희망임금과 실제임금에 미치는 영향」.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9(1): 127~152.
- 박환보(2011). 「대졸자 취업에 미치는 개인배경과 대학특성의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1~25.
- 변금선(2015). 「가구 소득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 취업 이행 기간 및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8(1): 129~161.
- 서유정·박천수·정윤경·김수원(2016). 『진로교육법 체제에서 진로교육 추진 현황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손은령(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혜숙·남수경·민병철(2013).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취업성과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2(1): 211~235.
- 안준기·배호중(2011). 「대학 재학시절 근로활동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 생계형 근로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1(4): 149~180.
- 윤수경·한유경(2014). 「대학생의 취업성과 영향 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3(4): 131~160.
- 이기학·이학주(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병희(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성우·민성희·박지영·윤성도(2005). 『로짓·프라빗모형 응용』. 박영사.
- 이영대·윤형한(2007).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이전이 · 유지현 · 강영민 · 박주호(2017). 「대학 졸업유예가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 『교육재정경제연구』 26(4) : 93~117.

이종구(2007). 「진로상담교수제가 재학생들의 학습 · 취업 역량과 경력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0(3) : 1383~1411.

정재호 · 서유정 · 이영민(2015). 『대학취업지원 역량 강화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주연 외(2011).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실태조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준모 외(2010).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실태조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HRD센터.

최기성 · 어수봉(2017). 「대졸 청년층 자격 투자 및 고용효과 연구」. 『직업과 자격 연구』 6(2) : 25~52.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http://kosis.kr>, 2018.1.20. 검색).

Bandura, Albert(1994). "Self Efficacy." In V. S. Ramachaudran(ed.).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4 : 71~81. Academic Press.

Heckman, James(1976). "The common structure of statistical models of truncation, sample selection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and a simple estimator for such models." *Annals Economic and Social Measurement* 5 : 475~492.

_____(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 : 153~161.

Katzman, Susan(ed.)(1995). *The Role of Career Education in School to-Work*. The Ohio State University.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2011*. Paris : OECD.

Taylor, K. M. and N. E. Betz(1983).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 : 17~31.

Wooldridge, Jeffrey(2013).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Seoul : South-Western.

abstract

Effects of Career Education Participation of College Students on Labor Market Performance

Park Cheonsoo

Using the 2013GOMS(Graduates Occupation Mobility Survey), we review the current state of career education programs implemented at universities and examined the impact on the transition to the labor market.

College graduates are involved in a variety of career education programs, but career support services offered by universities are at the lowest satisfaction level. As more and more university graduates take part in the career education programs, the possibility of getting full-time jobs is growing. As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creases, the wage levels systematically rise. In-school job fairs, internships and employment camp systematically contribute to not only the possibility of regular employment but the improvement of wage levels.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stronger support for career education at universities, improving the level of career education, and promoting selection programs for individuals or major units.

Keywords : career education, full-time employment, wage level, selection programs for individuals or major units